

세계기도정보

[우루과이] 우루과이 가뭄, 학교까지 강타...학생에 물 한 컵만 제공
 [콩고민주공화국] 폭력 사태 지속되는 민주공고 동부, 성범죄 횡행
 [이란] 이란 항소법원, 가정교회 지도자 2명 석방 판결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서 농민·유목민 유혈 충돌...85명 사망
 [수단] 세이브더칠드런 “수단 보건시설 파괴와 적대 행위 즉각 중단을”
 [캐나다] 캐나다 서부, 산불 시즌 진입...비상사태 선포되기도
 [세계] 소셜미디어 업체, 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 차단 위해 더 노력해야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교회, 경찰 제재로 부활절 예배 중단
 [시리아] 궁지 몰린 시리아 반군, ‘이슬람 극단주의’ 이미지 탈피 시도
 [이탈리아] 이탈리아, 극심한 가뭄 뒤 집중 호우...주민 900여 명 대피
 [중동] 강진 발생 100일, 시리아·튀르키예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해
 [아프가니스탄] FAO “식량난 아프간, 메뚜기떼로 밀 수확량 4분의 1 사라질 수도”
 [중국] 중국에서 흥기 난동에 이달만 24명 사망...빡빡한 삶, 분노 분출



2023. 05
 멕시코에서 온 편지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경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담임목사 김성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하나님의 타이밍..

4 월 20일 목요일, 병원에 계셨던 아버지가 퇴원하셨다. 이제 곧 출국이다. 위독하셨던 아버지 때문에 멕시코로의 출국을 이미 한번 미룬 터라 더 이상 5월 13일로 예정된 출국을 미룰 수 없다. 그런데 4월 29일 토요일, 다시 아버지가 위독하다. 병원에서는 며칠을 더 못 사실 것이라 말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한다: “천석아, 더 이상 치료는 하지 말아줘. 이곳에서 내 인생을 끝내고 싶다.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 그리고 너 엄마 잘 해줘라.” 의식을 잃은 아버지는 유일하게 나의 목소리에만 반응한다. 어머니가 보고 싶으신지, 정신이 들 때마다 “너 엄마는?”이라고 나에게 묻는다. 음식을 못 드신 지 열흘째다. 오늘은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아버지를 불렀다. 나에게 반응한다: “아버지, 엄마 왔어!” “여보 내가 누군지 알겠냐?” “그럼 내 마누라지. 미안하다”. 그리고 어느 때처럼 나를 보고 방긋 웃으며 말한다: “엄마 잘해줘라!”. 무엇이 그리 내가 좋으실까? 아버지는 나를 볼때마다 웃는다. 무엇이 그리 내가 자랑스러울까?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 천국에서 곧 다시 뵈어요”, “응!” 그의 얼굴에 확신이 있다. 감사하다. 아무도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다 알아들을 수 있다.

5 월 9일 화요일, 오늘은 큰 형님과 저녁을 함께 했다. 만약 내가 한국을 떠난 후 아버지가 소천하시면 내가 7월까지의 돌아올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5월 7일 주일 파송교회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께도 상황을 말씀드리고, 혹시 내가 없더라도 장례를 잘 치러 달라 부탁드렸다. 형님들도 내가 쿠바 사역으로 인해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신다. 마음이 무겁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소천하셨다. 11일 목요일까지 장례를 은혜 가운데 치른 후, 12일 금요일 출국 준비를 했다. 하나님의 타이밍! 13일 멕시코로 귀임하며, 방긋 웃고 계신 아버지를 떠올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5 월 2일 화요일, 아버지와 함께 병실에 있는데 쿠바로부터 문자가 도착한다: 약 250 kg의 의약품이 무사히 쿠바에 도착하여 배분되고 있다고 한다. 14개 광역도시의 교회들을 통해 의약품을 나눌 예정이란다. 그리고 매일 각 지역에서 의약품이 나누어지고 있는 사진들이 나에게 도착한다. 이제 내가 한국에서 준비한 의약품과 멕시코에서 준비한 의약품을 들고 6월 전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6월부터 다시 쿠바 정부에서 의약품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멕시코까지의 비행기표는 이미 구입되어 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쿠바로 들어가는 비행기표를 선뜻 구입할 수 없다. 병환 가운데 계신 아버지의 문제도 그렇고 또 쿠바로 입국 시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 머리로만 지금 티켓을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 버튼을 누를 수 없다. 아내가 나에게 말한다: “빨리 표 구입해, 여보 뭐하노!” 아내는 내가 지금 느끼는 중압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가 보다. 오히려 빨리 표를 구입해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 참 야속하다.

5 월 12일 금요일, 장례식을 끝내고,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짧은 방문 일정으로 쿠바행 비행기표를 구입했다. 혹시 이민국에서 문제가 되면 이번은 오직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할 예정이다. 아버지의 소천 소식을 접한 친구들이 나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선교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당장 이민 가방 4개의 의약품을 아무 문제 없이 멕시코로 가지고 가는 것부터 나에게 큰 기도 제목이다. 약 3천명분의 항생제와 의약품들이다. 그러나 나의 걱정과 관계없이 너무나 신기하게 아무문제 없이 멕시코로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다. 늘 매년 미국을 지날 때마다 미국 세관 검사 완료 서류조차 이민 가방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했을까! 감사하다. 이 소식을 접한 친구들이 또 말한다: “선교사님 아무 걱정마세요. 쿠바도 이렇게 될 겁니다!”- “아멘”

5 월 18일 목요일, 하바나에 사역하는 हे수 목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우리가 보내준 의약품을 가지고 약 보름의 기간 전도하며 6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 중 31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많은 지역 교회에서 우리가 보내준 의약품을 복음 전파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곧 내가 쿠바에 들어가는 것을 아는 쿠바 친구들로부터 필요한 의약품 리스트가 매일 나에게 도착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모든 약품을 내가 구할 수도 없다. 그러나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이 길을 간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나의 계획도 소망도 아니었다.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편지를 읽는 누군가의 마음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의약품도 의약품이지만, 나는 꼭 만나야 할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들이 그림자. 친구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랑!

기도제목

- I.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쿠바 사역의 안전을 위해
- II. 필요한 이들에게 의약품이 전달되며, 이것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 III. 6월 11일 과달라하라에서 있을 목사 안수식을 통해 세워질 3명의 목회자들이 복음의 온전한 통로가 되도록.